

순천만, 440만의 정원에서 5천만의 정원으로

결산

속도와 경쟁에 지친 세계인에게 정원 속 휴식을 선사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0일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국토 남단 중소도시 순천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44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외형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리 잡는 정원의 특성상 정원박람회장은 폐막 이후에도 지역 관광명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난해 폐막한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후활용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순천박람회도 체계적인 사후활용 준비라는 숙제를 남겼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정원=이번 정원박람회는 목표 관람객 400만명을 훌쩍 넘긴 440만3890명이 다녀갔고, 전시 기간 큰 사고 없이 진행되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됐다. 관람객 수가 성공 행사의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박람회 기간 국내외 관람객이 꾸준히 순천을 찾았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인기 비결은 순천만 일대의 자연과 환경·생태를 충분히 살린 전시 연출과 이를 활용한 관광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정원박람회는 자연, 생태, 환경, 조경, 화훼, 미용, 한방, 힐링, 휴식 등 현대인의 관심을 이끌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세계정원 11곳, 참여정원 61곳, 테마정원 11곳 등 83곳의 다양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는 점도 인기 요소였다.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찰스젠스가 순천의 대지와 하천을 모티브로 설계한 테마정원 '순천 호수정원'도 찬사를 받았고, 폐막 후에도 순천정원박람회장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74만 그루의 수목, 200만본의 초화류, 생태교육장 등은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견인하는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인에 '휴식' 선사 관객 '대박' 성공 박람회 사후활용 철저 준비 지역 관광명소 기대

주차장, 교통·숙박 등 분야도 합격점을 받았고, 민관이 협조해 바가지 요금을 없애 관람객들의 민원 발생도 거의 없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정원박람회의 경제효과로 1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6700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전망했다.

◇사후활용 '발등의 불'=대전엑스포와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순천정원박람회에도 폐막 후 철저한 사후활용이 뒤따라야 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원박람회장 초기 사후활용을 위한 연간 운영수입을 11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입으로 연간 관리운영비 86억원과 인건비 50억원 등을 빼면 소폭 적자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흑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게 순천시의 분석이다. 다행스럽게도 박람회 부지를 판 뒤 새 주인을 찾아 사후활용을 진행해야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비해 정원박람회는 부지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의 나무와 꽃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크다.

순천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함께 조경·화훼·미용·한방 등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순천만과 함께 생태관광 허브로 키운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정원산업지원센터, 정원박물관, 순천화훼연구소, 화훼·조경수 회사 등을 설립하고 전문 정원사 양성한다는 것이다.

/순천=오광록기자 kroh@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순천 동천 일대에 조성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람회 폐막 앞두고 찾아온 축하사절 '흑두루미'

이모저모

한국정원 특별상 수상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총괄 국제기구인 AIPH(국제원에생산자협회)가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뽑은 특별상에 한국정원이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 7500유로를 받았다.

또 국내외 도시와 기업, 작가 등이 참여해 조성한 61개의 참여정원을 대상으로 뽑은 참여정원상은 실내부문에서 대상(상금 1000만원)은 프랑스 피토렐, 금상(상금 700만원)은 바보아트 디자인이 각각 수상했다.

실외부문은 대상(상금 20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금상(상금 1000만원)은 서울특별시와 에이트리가 각각 받았다.

순천시민들이 참여한 환경정원(90개) 부문에서는 김미양씨가 대상(상금 200만원)을 차지했다.

자원봉사 기념 나무 심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폐막식에 앞선 지난 18일, 184일간 전시 기간



지난 18일 순천만서 관찰된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3마리. /연합뉴스

동안 탐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자 등을 기리는 기념 나무가 박람회장에 심어졌다.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박람회장에 자원봉사자(은목서), 정원해설사(금목서), 보건환경참여자(가시), 순천알리미회(후박), 재경후원회(괭), 홍보대사(느티) 등을 각각 상징하는 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순천만 상징 흑두루미 왔다

○...폐막을 앞두고 국내 최대의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흑두루미가 관찰돼

눈길을 끌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순천만에서 올해 처음으로 흑두루미 3마리가 관찰됐다.

순천만에는 매년 10월 중순에서 이듬해 3월말까지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등 두루미류 수백여마리와 많은 철새가 도래, 월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흑두루미 관찰은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정도 앞서 목격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3일 앞두고 순천만의 상징이자 순천시의 시조(市鳥)인 진객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은 것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자 방문한 축하사절"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난 1962년 8월 28일 순천시 동천 일대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해복구하는 선진...51년 전 사진 선물 받은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해 51년 전,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순천지역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원박람회 폐막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 박람회장을 찾아 조충훈 순천시장으로부터 박람회 관련 설명을 들으며 1시간여 동안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날 박람회를 설명하던 도중 "순천 동천에서 큰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난 1962년 8월27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방문, 신속한 복구를 지시해 오늘날의 동천이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흑시 사진이 있느냐?"라고 묻자 조 시장이 사진첩이 있다며 이를 보여줬고, 이 사진첩을 기념품으로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사진첩을 받아 든 박 대통령은 "50

년 전 일이네요"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이어 박람회장을 돌며 조 시장의 설명을 들은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람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사진보다 더 젊으시다"며 환호하자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와 인사를 나누는 뒤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박람회장 방문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정현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

한편 청와대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행사 기간인 지난 4월20일부터 이날까지 4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 '정원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빛의만평

- 김중두



숨쉬고 사는게 가장하이

한림제약이 전하는 건강뉴스 '국민강' 편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코



■ 콧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비염·호기 /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충혈제의 과용으로 인한 장막 건조·신축이 개선
- 무지막 / 인체와 같은 농도의 생리식염수 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삽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 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청 허가 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호기 건조 증상의 완화
용법·용량 / 성인: 증상제 따라 필요시 1회 2~3회 사용
※연령, 증상제 따라 적절히 증량하십시오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뽕코



■ 콧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비염·호기 / 코감기로 인한 장막 팽창과 충혈의 불균형을 혈관 수축으로 즉각적 효과를 발휘
- 중상해소 /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들 해소
- 휴대편리 /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삽입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 전신적인 작용 없이 코 안 한부분에만 작용하는 식약청 허가 의약품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감기, 고초열, 부비강염, 삼각도 알레르기 등에 의한 비충혈의 일시적 완화
용법·용량 / 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증상제 따라 1일 4~6회 사용
※연령, 증상제 따라 적절히 증량하십시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